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막스슈티르너와아나키즘적코민주의 의관계

매티토마스

매티토마스
막스슈티르너와아나키즘적코민주의의관계

kr.theanarchistlibrary.org

차례

서문	3
슈티르너의 사상	3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자와슈티르너의관계	7
추천도서	10

“우리 스스로를 위한 베이에어리어 그룹”의 『탐욕의 권리: 절대적인 모든 것을 요구하는 실용적 필요성에 관한 논문 The Right to be Greedy: Theses on the Practical Necessity of Demanding Absolutely Everything』. 슈티르너와 마르크스의 혼란에 영감을 받은 짧은 활동 기간의 상황주의자적 그룹이다. 그룹은 “그 모든 의미에서 탐욕은 코뮌주의 사회의 유일한 기반이다. 결국 탐욕의 현재 형태는 탐욕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스스로를 위한 베이에어리어 그룹”의 『지능의 최소정의 The Minimum Definition of Intelligence』. 스스로의 비판적 자기 이론의 구성에 관한 논문과 결합된 이데올로기와 고정 사상에 대한 비판이다.

오스카 와일드 (Oscar Wilde) 의 『사회주의 하에서의 인간의 영혼 The Soul of Man [sic] Under Socialism』. 이 아름다운 에세이는 자유 공산주의의 가장 웅변적인 에고이스트적 방어책 중 하나이다. 와일드가 실제로 슈티르너를 읽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는 독일어를 읽을 수 있었고, 이 글과 『유일자와 그 소유』 사이의 문체의 유사성은 그것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쨌든 이 아나르코멧쟁이의 글은 진지한 에고이즘 학습자에게 귀중한 것이다.

존 F. 웰시 (John F. Welsh) 의 『막스 슈티르너의 변증법적 에고이즘: 새로운 해석 Max Stirner's Dialectical Egoism: A New Interpretation』. 영어로 제공되는 슈티르너의 생각에 대한 가장 철저하고 일관된 탐구이다. 슈티르너의 철학 탐구, 사상가 벤자민 터커, 제임스 L. 워커 및 도라 마르스텐에 대한 그의 영향 및 슈티르너와 니체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다룬다.

멈추고, 노동의 생산물을 자신의 것이라 선언하고, 즐기면 된다. 이것도 노동쟁의 의관점이다. 국가는 노동의 연속에 의존한다. 노동자들이 자유로워진다면, 국가는 사라질 것이다.”

슈티르너는 에고이스트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단결은 감상적 공감이나 오도된 도덕성 따위의 목적에서 비롯하는 것이 아니라 에고이스트들이 다른 온전히 실현된 개인들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에서 비롯해야 한다고 말한다. 참된 에고이스트적 개인은 에고이즘의 일반화로 부터 지극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공통된 이해 관계를 가진 에고이스트 간의 단결은, 그리고 모든 착취당하고 억압된 사람들의 개인적 이해 관계에 기초한 단결은 이 억압을 끝낼 것이다. 의지적 에고이스트들에게 다른 아나키스트들이 이른 것처럼 사회 혁명은 개인적 반란의 거대한 총체로써, 슈티르너가 이르는 바, 에고이스트 동맹이 영속적으로 “거대하고, 쉽고, 당당하고, 무의식적이며, 자랑스러운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 반란의 범죄를, 수용의 범죄를, 혁명의 범죄를!

“먼 거리에서 천둥이 우르릉거릴 때, 하늘이 조용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보이잖는가?”

추천 도서

막스 슈티르너의 『유일자와 그 소유』. 슈티르너의 유일한 책이자 대표작.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스테픈 T. 브링턴 (Stephen T. Byington's) 이 번역한 단 하나의 영역본만을 읽을 수 있다. 울피랜드 스트라이커 (Wolfgang Landstreicher) 는 가까운 시일 내 선보일 새 번역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막스 슈티르너의 〈슈티르너의 비평가들 Stirner's Critics〉. 이 에세이에서 슈티르너 (전반적으로 제 3 인칭으로 지칭한다) 는 그의 철학을 일부 잘못 해석한 부분을 명확히 한다.

막스 슈티르너의 〈우리 교육의 잘못된 원칙 The False Principle of Our Education〉. 『유일자와 그 소유』 가 출간되기 전에 쓰인 이 기사에서 슈티르너는 사심 없는 학자를 배출하기 위한 귀족적 교육 방식의 휴머니즘과 유용한 시민을 배출하기 위한 민주적 사상파의 현실주의를 동시에 비판한다. 슈티르너는 후자를 편애하는 한편 교육의 목표는 대신 자유롭고 자기 창조적인 개인들을 양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엠마 골드만의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 The Individual, Society, and the State〉. 골드만의 가장 “슈티르너스러운” 에세이.

엠마 골드만의 〈도덕의 희생자 Victims of Morality〉. 이 에세이에서 골드만은 도덕의 명령을 “성장에 해롭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마비시키는” 거짓말이라고 공격한다.

서문

1884 년 막스 슈티르너의 『유일자와 그 소유 The Ego and Its Own』 가 출판된 이래, 그에 대한 반응은 완전한 부정에서 무비판적 수용까지 다양했다. 슈티르너에 관한 이상하고 모순적인 이야기들이 논해지고 있다. 유명한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자 인 학자 노엄 촘스키는 슈티르너가 극도로 자유지상주의적인 자본주의자들 (미국에서는 이들이 자유지주의자라고도 된다) 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슈티르너의 사상을 아나키즘적 조합주의 조직의 근간으로 만든 사람 또한 존재한다. 불편함을 주기 위해 쓰인 책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소책자의 목표는 위대한 독일 사상가의 이념을 탐색하고, 그것이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자에 기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슈티르너의 저작에 익숙한 몇몇 독자들은 이 글에 털을 곤두세우고, 슈티르너가 공개적으로 코뮌주의를 비판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러했다. 하지만 슈티르너가 비판한 코뮌주의는 아나키스트들 역시 비판하는 바, 권위주의적 코뮌주의이다. 아나키즘적 코뮌주의는 슈티르너의 시대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슈티르너가 생각하고 있던 바 코뮌주의는 수도원이나 병영의 코뮌주의, 자기 희생과 일반적 평등의 코뮌주의였다. 개인이 유일자로 스스로를 발전시킬 자유를 보장하는 코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슈티르너와 비슷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슈티르너의 사상

슈티르너는 그의 저작을 “나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며 시작한다. 그는 개인이 처음에는 신이라는 대의를 고려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인류의 대의를, 국가의 대의를, 진리를, 정의를, 그리고 수천 가지 다른 대의를 고려한다고 답한다. 하지만 개인이 고려하지 않는 유일한 대의는 그 스스로에 관한 것이다. 나의 대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스스로의 대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 치부된다. 그 대신에 개인들은 언제나 스스로의 대의 앞에 다른 대의를 두라고 교육받는다. 우리는 스스로가 아닌 타인을 위해 일할 것을 강요받는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비도덕적이기 주의자가 된다. 우리는 이 타적일 때 비로소 도덕적이 될 수 있다. 우리와 무관한 대의에 따르면, 그 대의에 복무할 때에야 말이다.

슈티르너는 이것을 온전히 부정한다. 슈티르너는 질문한다. “신은 그 스스로의 것이 아니다. 다른 대의에 복무하는가? 신실한 이들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신은 총체적이므로, 그의 것이 아닌 대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인류는 그 스스로의 것이 아니다. 다른 대의에 복무하는가? 인본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인류는 인류의 이익에만 복무한다. 인본적 대의가 아닌 대의는 있을 수 없다.”

보라. 신과인류의대의역시온전히이기적이지않은가. 신은그스스로만을고려한다. 인간또한그러하다. 이에슈티르너는독자들이이위대한이기주의자들을본받아스스로를주된안건으로두기를촉구한다. 즉, 의지적으로에고이스트가되라는것이다. 슈티르너에게모든개인들은절대적으로유일하며, 개인이의식적으로에고이스트가된다면, 그개인은그녀의개인적유일성을포기하거나, 개인적자발성을제약하려는모든시도를거부할것이다. 이것은개인의이익보다더높은것을위한복무요청역시거부한다는뜻이다. 높으신존재나대의에대하여스스로를희생하는이들은속아넘어간, 무의식적에고이스트일뿐이다. 이들은그들이복종하는대의가무엇이건간에, 그대의아래에서자신의즐거움과만족을발견하지만, 인정하지못하는것뿐이다. 이들은단지에고이스트가되고싶지않은에고이스트일뿐이다.

“개인의모든행동들은암묵적이고, 비밀스러우며, 은밀하고, 내밀한에고이즘이다. 하지만이것이에고이즘이기때개인들이스스로인정하지않고, 비밀로두고, 공개하지않아결과적으로무의식적에고이즘이되는것뿐이다. 그렇기에이것은에고이즘이아니라, 노예적예속, 복무, 자기포기에불과하다. 개인은에고이스트이지만, 에고이즘을부정하는이상에고이스트가아니다.”

슈티르너는그의저작을다음과같은울부짖음으로시작하고맺는다. “나는어떠한대의로부터도비롯하지않는다!”이괴테의인용구는오늘날슈티르너의것으로더유명하다. 슈티르너가인용하지않은괴테의시의다음절은“그리고세상은나의것이다”이다. 슈티르너에게자신은결코이해될수없는것이다. 우리모두가각각지속적으로자신을소모하고재생산하기때문이다. 슈티르너는이자기소모와자기창조의과정을공허를창조한다고언급한다. “이과정공허하다는것이아니라, 내가창조자로써모든것을창조한다는의미에서공허하다.”외적인대의들은언제나개인들이스스로를가장나중에고려할것을요구한다. 이것이야말로개인을아무것도아닌양취급하는것이고, 그개인은이에적극적인수용의대상이되어, 이에에고이스트들에게이용되게된다.

『유일자와그소유』는 3 장으로구성되어있다. 슈티르너는인간의삶을예시로들어인간발전을역사발전의 3 단계에비교한다. 우리는현실주의적어린이로써탄생한다. 이기간동안, 어린아이들은부모와같은물리적, 외적힘에굴복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이제약을박차고슈티르너가언명한바“정신의발견”으로향한다. 어린아이는그지혜와결심을이용하여그를점검하던물리적힘을회피한다. 이를통해우리는현실적유아기에서이상적청소년기로이행한다. 물리적외부계약조건은청소년들에게더이상위협이되지못한다. 하지만이제는이성, 양심, 의식, 이상과같은내적계약들을경험한다. 유아는삶의따부분(현실적부분)에얽매인다면, 청소년은하늘부분(이상론적부분)에얽매인다. 에고이스트적성년기에몰입할때에야, 이개인은외적인, 현실적인계약조건과내적인, 이상론적인계약조건으로부터자유로울수있다. 슈티르너는이를다음과같이요약한다.

을통해이를시사한다. “나는당신의소유로부터물러나지않는다. 다만나는그것을나의소유라바라본다. 나는어떠한것도‘존중’하지않는다. 당신이나의소유물이라부르는것에대해서도똑같이하도록하라!”

또한슈티르너는노동의분할이나노동그자체와같은자본주의적삶의근본적측면을공격한다.

“모두가스스로를인간으로구축하는과정에있어, 인간을기계와같은노동량으로격하한다. 모든노동은인간의만족을목적으로가져야한다. 그렇기에인간은노동의주인이되어야하고, 그것을총체적으로행할수있어야한다. 핀공장에서핀의머리를꿇기만하는노동자, 철사를자르기만하는노동자에게노동은기계적이다. 그노동자는숙련되지못한채로남고, 노동에목적성을가지지못하고, 노동을완성하지못한다. 그노동자는다른자의손이되어이용될뿐이다.”

슈티르너는강제되고, 격하되고, 엄격한자본주의적노동이아닌인민이에게이즘에근거하여참가하고자지실현과자기즐거움을확립할수있는에고이스트적노동을제지한다. 에고이스트적노동은에고이스트동맹을통해다른에고이스트들과함께진행할수있지만, 각구성원들은의지적에고이스트로남아야할것이다. 슈티르너는협동경쟁보다더만족스러울수있다는것을인지한다.

“쉽없는확보는우리에게숨을실시간을, 평온한즐거움을앗아간다. 우리는우리의소유로부터즐거울수없다. 그렇기에경쟁적이지않고, 우리의시간과수고를요구하지않는노동에대한합의는언제나도움이된다.”

사회주의와코뮌주의에대한주된비판은, 슈티르너당대의사회주의와코뮌주의가개인을무시했기에성립한다. 이이데올로기들은추상적사회에인간의소유권을이양하고자했다. 이는어떠한사람도어떠한것도소유하지못함을의미한다. 권위주의적사회주의는자유경쟁(슈티르너는이것이자유로운것이아니라고지적했다) 의문제를치유하기위해모두로부터모든것을외화한다. 이러한종류의코뮌주의는코뮌(공동체) 나사회에근거할뿐, 슈티르너가바란바동맹에근거하지않는다. 망령의손에소유를이양하고개인에게아무것도남기지않는코뮌주의는새로운폭압이상도이해도아니게된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는이러한에고이스트적사야를바탕으로, 코뮌주의가코뮌그자체를위한것이아니라, 모든유일한개별자들의자기즐거움과자기실현의수단임을인지하여야한다.

슈티르너의에고이스트동맹을이해하는것은그의사상을반란적으로이해하고, 주류아나키스트의혁명에대한관점과연관짓는데중요한일이다. 슈티르너는혁명을거부하고, 반란을선호한다. “혁명은새로운질서를추구한다. 반란은더이상질서정연하지않을것이며, 스스로질서를만들겠다는, 제도에희망을걸지않겠다는우리의선언이다. 하지만슈티르너는집단행동의해방적가능성과각에고이스트의개인적반란을뮈어낼필요를인정한다. 슈티르너는파업행동의가치에대해다음과같이언급한다.

“노동자들의손에는가장놀라운힘이줘어져있다. 그리고만약그들이이것을정확히인지하고사용한다면, 무엇도그들을이길수없다. 그들은단지일하는것을

들』¹ 서문에서, 엠마는슈티르너의철학은“위대한사회적가능성을포함하고있다”고밝힌다. 이후슈티르너에대해비판적으로변한머레이북친은, 어렸을당시“슈티르너의개별성에관한유토피아적시야는점점탈개인화되어가는세상에서개성확립의새로운출발점이되었다”고쓴바있다.

분명하게, 사회에근거한아나키스트들도슈티르너의사상에관심을가져왔다. 그리고오늘날에도그러하다. 혁명가들조차개별성의적들사이에서길을잃고자기희생을부르짖고있는세상에서, 슈티르너의비타협적이고이즘은신선한한숨과같다. 많은코뮌주의자들은하느님아버지, 하느님국가, 하느님업을부정하면서도, 그자리에하느님공동체를세워넣고는한다. 그리고이것은크로포트킨이말하는바, “그이전어느것보다무서운신성이다.”슈티르너에게있어이모든것은망령이다.

코뮌주의적이고이스트들은인민, 대중, 또는그어떤망령에도복무하지않는다. 그들은그저자신에게복무한다. 그들자신이인민의일부이고, 대중의일부이기때문이다. 우리들자신이행복하지않는데, 어떻게인류가행복해질수있겠는가? 스스로맑스주의적슈티르너주의자라고자처하는‘우리스스로를위한베이에어리어그룹’은“모든혁명가는자신에게만의회할수있으며, 그래야한다. 비이거적인사람들은언제나그충성을다른곳으로옮겨갈수있다. 나아가, 가장탐욕스러운사람들이그들스스로의혁명적계획을지킬것임은믿을수있다.”

국가와자본의권위를파괴하지만, 도덕, 인간성, 권리, 이타성과같은고정된개념들의권위를남기고자한다면, 아나키스트들은오직만만을달성하는것이다. 에고이스트들에게이러한망령들은더끔찍하고, 더가시적인권위의형태가될수있는망령이다. 이타주의는우리문명에있어그무엇보다치명적인미신이다. 노동자들이자본가를배물리기위해매일행하는것이이타적행동이다. 여성이남성을“섬기기위해살아가는것”이이타적행동이다. 이타주의의범행은끝이없이나열될수있으며, 의지적에고이스트들에게이타주의적사회주의는권위를다른권위로변환시킬뿐, 그것을철폐하지는못하는, 우스꽝스러운소극笑劇에불과하다. 에고이즘은개인들이어떠한대가도없이죽어가는것을막고자한다. 그리고이발상이에고이즘적코뮌주의자들의반란과수용에대한열망을만들어낸다.

슈티르너의망령에대한관점을현대사회의가장신성한우상인사적소유에대입하면, 이것은거의완전히코뮌주의적이다. 얼마나많은개인들이그들의소유를희생했고, 이끔찍한물욕이얼마나많은삶을망쳐놓았는가? 슈티르너는사유재산에관한권리를(그가다른일반적인권리들에대해그러한것처럼) 비웃었다. 슈티르너는사적소유는그것을확보하고지킬힘에근거한다고지적한다. 사유재산은또다른망령에지나지않는다. 세상전부가에고이스트의소유이거나소유가되기되기다리고있는것이기때문이다. 다르게말하자면, 코뮌주의적이고이스트들은삶을총체적으로수용하는목적ulg 가진다. 슈티르너는다음과같은훌륭한문장

“내가물질과정신의뒤에있는스스로를발견하기에, 나는이후에생각-지혜의뒤편에서그것의창조자이자주인인나스스로를발견해야한다. 영혼의시간에, 사상은그것이나를뛰어넘을때까지자란다. 사상은내주변을배회하며마치열병을앓아보는환등상처럼나를경련시킨다. 끔찍한힘이다. 사상은마치유령과같이스스로형태를가진다. 신, 황제, 교황, 조국등을보라. 내가그형상을파괴한다면, 그리고그것을다시나의것으로만든다면, 나는‘오직나만이유령의것이다’라고선언할것이다. 그리고이제나는세상을나의것이라, 나의소유라선언한다. 나는모든것을나의것이라선언한다.”

그리고슈티르너는역사발전의맥락에서위세개의시기를정의한다. 고대의현실적세계, 근대의이상주의적세계, 그리고아직오지않은에고이스트적미래로말이다. 기독교이전의세계는현실적유년기에대응하고, 기독교세계는이상적청소년기에대응한다. 세속주의의도래와함께, 근대사회는종교에의한사고의지배로부터벗어났다고주장한다. 슈티르너는그렇지않다고말한다. 근대성은종교에의한지배, 즉더높은고결한것에의한지배를더중대시켰을뿐이라는것이다. 프로테스탄트개혁을보자. 종교개혁은“자유의지의종교”를향한문을열어내어교회의권위로부터사람들의삶을해방한해방적사건이었다고칭해진다. 슈티르너는종교개혁을종교적지배의확장이자강화라바라본다. 개혁을통해종교는그이전까지알려져있지않던영역으로침범했다. 로마가톨릭교회는사제들이결혼하지못하게했다. 프로테스탄트는결혼을종교적으로만들었다. 같은방식으로로마가톨릭교회는그조직적이고공식적인사제와전례를통해종교적권위를개인바깥에위치시켰다. 하지만프로테스탄트는사제와전례를철폐하고, “만인사제설”의원칙에따라종교적권위를모든신자에게내재시켰다. 이러한권위로부터개인언달아날수없다. 결과적으로개인들은내적전쟁에놓고, 그욕망을충족하지못하고, 내재화된종교적권위로고통받게된다. 슈티르너는이것을시민과비밀경찰의투쟁에비교한다.

슈티르너는이러한경향이근대를통틀어지속되었다고주장한다. 진보에대한이야기가, 더자유로운사회의성취에대한이야기가, 과거의낡아빠지고죽은가치와전통으로부터벗어나는것에대한이야기가많이되고있지만, 근대성은권위를확대하고강화하여더욱불가침으로만들뿐이다. 이를테면, 인본주의의발흥은심자가에못박힌신을그왕좌에서끌어내렸지만, 동시에그왕좌를인류에게바쳤다. 하지만인류는너무나도개념적인것이어서개인이복종하기어렵기에, 슈티르너는인본주의는종교와같다고주장한다. “모든무신론자는신실한사람들이다.”슈티르너는인본주의가신정주의보다오히려더폭력적이라고주장한다. 유령과같은인간성은그불신자들에게더욱공포를주기때문이다. 슈티르너에게근대성은오직인민이복종하는추상(“망령”)의수를늘렸을뿐이다.

슈티르너는“자유롭다”고자칭하는사람들(현대적용어로는“진보적”)이되겠다.) 이성상파괴주의자인양비추어지는것을비난한다. 현실적으로이들은“가장근대적인근대인”일뿐이기때문이다. 슈티르너는헤겔주의좌파가독일철학을

¹ 국내에는 『저주받은아나키즘』으로출판됨.-역자주

지배하는것에비판적이었다. 또한정치적, 사회적사상에만연한자유주의를비판했다. 슈티르너는자유주의를정치적자유주의(오늘날의고전적자유주의), 사회적자유주의(사회주의), 인본주의적자유주의(인본주의)의3종류로구분했다. 정치적자유주의는개인을국가안에서자유로운시민으로다루었고, 사회적자유주의는개인을노동자로다루었고, 인본적자유주의는개인을인간으로다루었다. 하지만이모든다양한자유주의는개인의특정한부분을강조하고, 다른부분들의복종을요했다. 슈티르너에게, 모든개인은시민, 노동자, 심지어인간이상무엇이었다. 인간적본성, 혹은인간의본질은개인으로부터분리될수없고, 그위에놓일수도없다. 한본질이개인위에놓이는것은, 또다른명령에지나지않기때문이다. 슈티르너는어떠한공동적인간의특성도인간위에균립해서는안되며, 개인만이그스스로의살과피로존재한다고말한다.

슈티르너는이근대성비판으로부터에고이스트적미래의기대로이행한다. 그는개인들이모든신성한개념들을떨치고, 스스로를권위의사슬로부터자유롭게할것을주장한다. 해방은다른사람이해줄수있는것이아니다. 슈티르너는자기해방에관해쓰인가장유창한아나키스트적표현을통해스스로의입장을분명히한다.

“자기해방과해방의차이는다음과같다. 오늘날의‘반대파’들은‘자유롭게하는것’에목말라하고, 그것을부르짖고있다. 지배자들은‘적절한때가오면백성들에게해방을선언’하려한다! 적절한때가될때까지착한아이가되어야한다. 만약그렇지않는다면, 적절한때는오지않을것이다. 그리스인들에게때가왔을때, 그들은폭군을몰아냈다. 그리고그아이들에게적절한때가왔을때, 그들은아버지로부터독립했다. 만약그리스인들이그폭군들이자비롭게도다수당지위를줄때까지기다렸다면, 아마도어머머하게기다려야했을것이다. 분별없는아버지는때가오지않는아들을집에서내쫓을것이다. 해방된인간은해방된인간일뿐이다. 해방노예일뿐이고사슬을끌고다니는개일뿐이다. 인간은자유로걸치장한비자유인일뿐이다. 사자의가죽을쓰당나귀가사자인것은아니다.

더많은사람들이의식적에고이스트가되어갈수록, 그들은그개인성에대한물리적·영적제약을거부할것이다. 슈티르너의에고이즘에대한개념은에고이즘이라불린다른철학과분명히다르다는것을지적할필요가있다. 슈티르너는자신의이해관계를, 이기심을대변한다. 하지만그는이단어를일반적인좁은방식으로사용하지않는다. 슈티르너는끊임없는이윤추구의사도도아니고, 고립이나타인을신경쓰지않는이기심을전도하지도않는다. 슈티르너에게자신의이해관계는각개에고이스트들이적극적으로자기주변의세계를자신의소유물로선언하는것을포함한다. 여기에서슈티르너가사용한소유물이라는단어가, 많은독자들이슈티르너를오해하게하였다. 하지만슈티르너가사용한소유물이라는단어는제한적인, 경제적단어가아니었다. 오히려슈티르너는이단어를에고이스트와유관하여사용한다. 그렇기에내가어떠한개념에대하여개인적흥미를가질때, 나는그것에손을뻗어그개념을나의소유물로만드는것이다. 의식적에고이스트에게무언가를소유물로만드는유일하게결정적인요인은, 그것을향해손을뻗어가져올의

지다. 이러한에고이스트적소유물의적극적확보의목적은, 개인들자신의즐거움이다. 슈티르너에게다른사람들또한(상호간의) 자기즐거움의도구가된다.

“나에게다른개인은식량일뿐이다. 나는그들을섭취하고이용한다. 우리는서로에게필요성이라는오직하나의관계만을가진다.”

슈티르너를타인에대한착취의대변자로바라보는이들은쓰여있는것을올바로이해하지못하고있다. 슈티르너는연인이나카페에가는친구들, 놀고있는아이들을예시로들어이러한상호간의자기즐거움이나소비를, 그가에고이스트동맹이라부르는관계를설명한다. 에고이스트동맹은그에참여하는이들이에고이즘으로비롯하여자유롭고자발적으로맺는관계다. 에고이스트들은동맹을이용하지만, 동맹은그들을이용하지않는다. 동맹의모든구성원들은그들의의지로관계를꾸준히갱신한다. 만약어떠한특정구성원이기대에미치지못하거나부족하다면동맹은무언가다른것으로격하된다. 슈티르너는동맹을사회조직의대안적방법론으로, 에고이스트들이“국가라는배를침몰시킨후”개별자의자발성이꽃필수있는상태를촉발할수단으로제시한다.

이것은슈티르너의사상을극도로단순히요약한것이다. 이로써슈티르너의에세이의후반부에대한흥미를불러일으키고맥락을제공하고자함이었다. 슈티르너의사상의광범위함과그관점은그를요약하기어렵게만든다. 그리고이장 자체는두배는더길수있었다. 더궁금한사람이있다면, 이소문서하단부의추천도서목록을참고하기바란다. 모든사람은슈티르너에관해얼마나받아들이고, 그것으로무엇을할지를결정해야한다. 하지만슈티르너는그의저작에대한이러한해석들에대해“그것은당신의문제일뿐, 내가알바는아니다.”라고답한다.

“나는어떠한대의로부터도비롯하지않는다!”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자와슈티르너의관계

상대적으로최근까지슈티르너에게영향을받은아나키스트들은코뮌주의자가아니었다. 미국에서에고이즘의가장유명한성원인벤자민터커와그동지들은개인주의적아나키스트잡지「자유」를중심으로연계했다. 실제로, 터커는슈티르너의책의첫번째영어판출판을주동했다. 하지만, 그는주류아나키즘전통에입각한사상가들에게도큰영향을주었다. 1940년대에, 클래스고아나키스트그룹의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들은슈티르너의사상을그조직의근간에두었다. 그들은슈티르너의에고이스트동맹에관한생각을산업을자유롭게조직하는방법으로받아들였고, 이를통해조합주의를“에고이즘의응용”이라설명했다. 아나키즘적코뮌주의활동가이자만화가인도날드룸은그그룹의구성원들에게슈티르너를소개받은이후의식적에고이스트가되었다. 엠마골드만의아나키즘은슈티르너나니체와같은사상가들로부터영향을받았다. 그녀의책『아나키즘과다른에세이